

## 미국 드라마 팬자막<sup>1)</sup> 이용자의 선호도 조사

박 경 리  
(한국의국어대)

### 1. 서론

국내에서 미국 드라마(이하 ‘미드’)의 온라인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은 자발적으로 자막을 제작하는 팬자막 제작자이다. 팬자막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내의 한 미드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2012년 하반기 시즌에 월평균 70여편의 미드에 대해 203개의 한글 팬자막<sup>2)</sup>이 배포되었다. 미국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빅뱅이론>이나 <모던 패밀리>의 팬자막 게시물 조회수는 기본적으로 1,500 이상이다. 대부분의 팬자막 제작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에 자막을 올리고 있으며 해당 미드의 방영일에는 블로그 방문자가 많게는 천 단위<sup>3)</sup>를 넘어선다고 한다. 팬자막 제작자가 1차로 공유한 온라

- 
- 1) 본 연구에 사용된 ‘팬자막’이라는 용어는 김순영·정희정(2010)의 정의에 따라 국내 미드 비전문가 자막을 의미한다.
  - 2) 미드 시즌이 시작하는 9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디○○○○○에 올라온 자막이 포함된 게시물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인 커뮤니티나 블로그 외에도 P2P 사이트에 재배포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실제 팬자막 이용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미드 팬자막 이용자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팬자막 제작자와 이용자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선호도 분석을 통해 팬자막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에 참여할 팬자막 제작자를 섭외 후 10-30대 팬자막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인터뷰에서 팬자막 제작자는 “자막을 보는 이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취지와 일치하였다. 이용자 사이에 인지도가 높은 팬자막 제작자와 설문 문항을 공동 설계함으로써, 그들이 피드백을 얻고자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팬자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팬자막 번역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팬자막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찰할 수 있었다.

## 2. 선행연구

앞서 소개했듯이, 팬자막을 포함한 미드 팬덤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나 이용자 중심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 논즈(Nornes 1999)가 말한 일본 애니메이션 팬자막에 사용되는 번역 전략은 루이스(Lewis 1985)의 ‘abusive translation’에 기반을 둔다. 디아즈 신타스(Diaz Cintas 2004)와 페레르 시모(Ferrer-Simo 2005)는 일본 애니메이션 팬자막의 특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김순영·정희정(2010)은 미드 팬자막 특성이 애니메이션 팬자막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언급하였고, 정희정(2010)은 <섹스 앤 더 시티>에 대한 전문가 자막번역과 팬자막을 비교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팬자막 특성으로는 다양한 색상 활용, 음차 번역, 역주 활용, ST와 TT의 병기 등이 있었다. 본 연구의 사전 인터뷰에 참여한 팬자막 제작자가 공통적

3) 본 연구에 참여한 팬자막 제작자로부터 블로그 방문자 통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를 제공한 팬자막 제작자는 설문조사 중 ‘선호하는 팬자막 제작자’ 항목에서 과반수(53.1%)의 표를 얻었다.

으로 사용하는 전략은 음차 번역과 역주 활용이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중심으로 설문 문항을 설계하였다.

그간 팬자막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는데 이상빈(2011)은 팬 번역의 법적 지위를 다루었다. 2011년 10월 12일, FOX채널의 한 관계자는 <워킹데드> 영상 및 자막 저작권을 단속하겠다는 공지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에 올렸다. 그러나 팬자막 제작자는 이런 공지 후에도 동일한 사이트에 꾸준히 <워킹데드> 자막을 배포하고 있으며 FOX채널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전 인터뷰 단계에서 자막 저작권과 관련된 팬자막 제작자의 입장을 들어보았으나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였다.

최근 연구에는 팬자막 제작자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번역학적 관점이 아닌 사회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강진숙·강연곤·김민철(2012)은 팬자막 제작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팬덤 문화의 생산과 공유를 연구하였고, 김호영·홍남희(2012)는 팬자막 제작자의 능력을 문화 자본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팬덤이라는 사회문화적 현상보다는 팬자막 제작자가 겪는 번역 문제와 팬자막 수용성에 관심을 두었다.

김선영(2013)의 팬자막 독자 반응 연구는 무작위로 선별한 100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팬자막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와 목적이 비슷한 측면도 있으나 설문 항목, 대상 등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결과 또한 부분적으로 달랐다. 그는 팬자막의 인지 여부를 연구 문제에 포함했으나 본 연구는 주타겟이 매니아층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번역 자체에 대한 반응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었다. 작품에 따라 자막의 다양한 위치, 2줄 이상의 자막, 외국어와 한국어 병기 등을 팬자막 특징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제작자의 자막을 채택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몇몇 특징은 제외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두 연구 모두 자료 이미지를 동일한 미드인 <빅뱅이론>에서 발췌했는데 시기적으로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하반기에 방영한 시즌 6 영상을 이용했으므로 시즌 3 또는 그 이전을 이용한 김선영(2013)보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였다.

### 3. 조사 방법

설문조사는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1주일 동안 온라인 설문 웹사이트인 ‘서베이몽키’에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링크는 자막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내 커뮤니티인 디○○○○에 공유되었다. 본 설문에는 총 2,525명이 참여하였고, 이 중 유효한 응답자 수는 2,405명이었다. 공개 링크로 진행되어 정확한 응답률은 측정하기 어려우나 상당수의 팬자막 이용자에게 노출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설문 대상자는 토렌트 등의 P2P 같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미드 영상을 다운 받고 한글 팬자막을 이용하는 10-30대였다.

사전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팬자막 제작자는 자막에 대한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그 중 팬자막 제작자 A는 “많은 사람이 본다는 걸 생각할 줄 아는 자세”를 팬자막 제작자의 자격 조건으로 언급하였고, 팬자막 제작자 D는 “양질의 자막이 만들어 지려면 좋은 피드백과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용자 선호도 조사에 팬자막 제작자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연구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 여겨졌다.

설문 문항은 총 19문항으로 17개의 객관식과 2개의 주관식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팬자막의 특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항은 이용자에게 잘 알려진 팬자막 제작자와 공동으로 설계를 했으며 실제 팬자막에 이용되었던 문구와 자막 제작자가 제안한 대안 번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다수의 팬자막 제작자들에게 검토를 부탁했고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받았다.

“온라인 자막 품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게 좋은 피드백이 될 것 같습니다” (팬자막 제작자 A).

“설문 결과에 따라 자막 제작 과정에 참고할 생각입니다” (팬자막 제작자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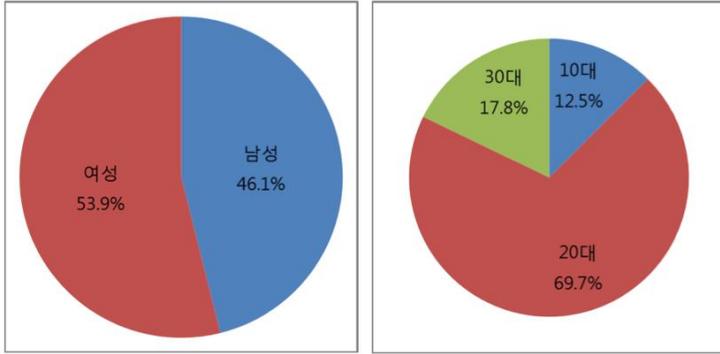
“자막 제작에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을 짚어주는 질문들입니다” (팬자막 제작자 C).

“자막 제작자로서 의역이나, 주석이냐는 저도 항상 고민하곤 합니다. 결과가 기다려지네요” (팬자막 제작자 D).

“추후 저에게도 큰 피드백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팬자막 제작자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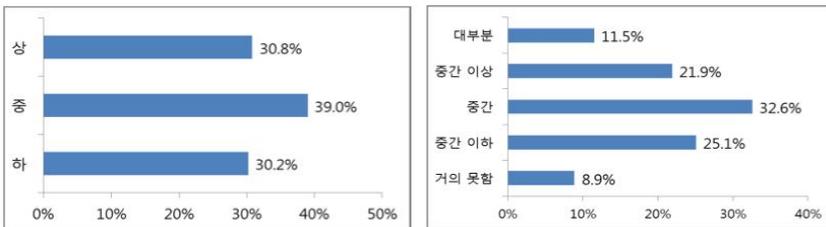
## 4. 조사 결과

### 4.1 이용자의 기본 프로필



(그림 1) 응답자의 성별(좌) 및 연령별 분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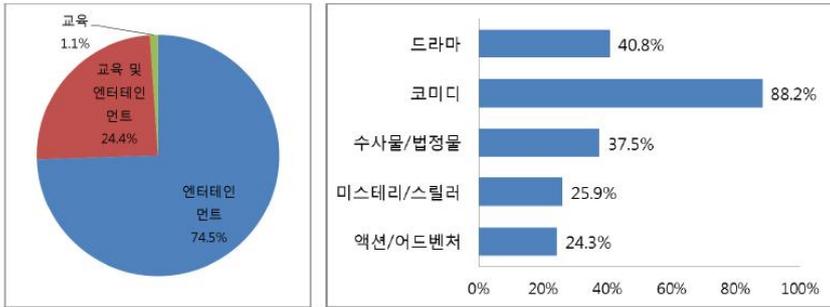
미드 팬자막 이용자 2,405명 중 남성은 46.1%, 여성은 53.9%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69.7%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7.8%, 10대가 12.5%로 나타났다. 이는 저작권보호센터(2012)가 발표한 2011년 연령별 불법복제 방송물 이용률<sup>4)</sup>과 대체로 비슷하다.



(그림 2) 영어 리스닝 점수(좌) 및 무자막 시청 시 이해도(우)

4) 저작권보호센터가 발간한 '201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한 해 동안 불법복제 방송물 이용률이 제일 높은 연령층은 20대였다.

응답자의 영어 실력은 중급 수준을 기준으로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영어 실력은 공인 영어 성적<sup>5)</sup>과 자막 없이 시청할 때의 이해도를 묻는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한글 자막 의존도는 리스닝과 가장 높은 관련이 있으므로 독해나 회화 실력은 반영되지 않았다. 영어 리스닝 점수가 중급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39.0%, 상급은 30.8%, 하급은 30.2%였다. 자막 없이 미드를 시청할 때, 전체 내용의 중간 정도를 이해하는 응답자는 32.6%, 중간 이하는 25.1%, 중간 이상은 21.9%, 대부분은 11.5%, 거의 못한다는 8.9%였다. 이처럼 응답자는 영어 실력에 관계없이 미드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3) 시청 목적(좌) 및 즐겨보는 장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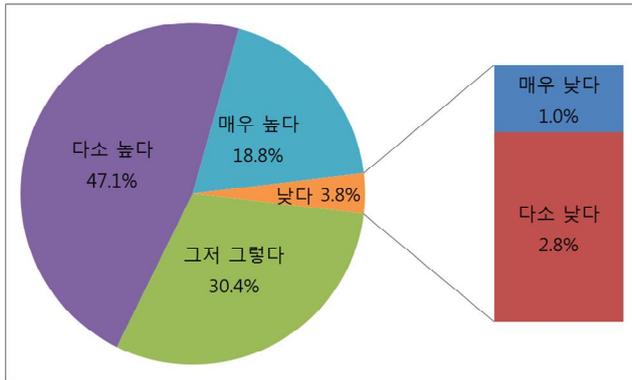
시청 목적으로는 74.5%가 엔터테인먼트, 24.4%가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1.1%가 교육을 선택하였다. 즉, 팬자막을 이용하며 미드를 시청하는 응답자는 영어 학습보다는 단순히 즐기자는 목적이 강했다. 미드로 영어 공부를 하려면 영어 자막을 이용하거나 아예 자막 없이 보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와 케이블 TV를 통한 미드 시청도 오락이나 정보 획득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임양준 2010), 시청 목적에 있어서 팬자막보다는 콘텐츠 자체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즐겨보는 미드의 장르에 대한 질문에서는 디○○○○○ 공지에 구분된 5

5) TOEIC 리스닝 점수를 기준으로 400점대, 300점대, 200점대를 각각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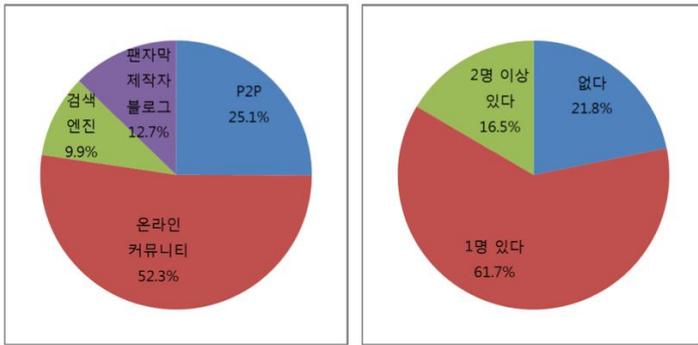
가지 장르를 기준으로 하였다. 복수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코미디가 88.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나머지 장르 중에는 드라마가 40.8%, 수사물/법정물이 37.5%, 미스터리/스릴러가 25.9%, 액션/어드벤처가 24.3%였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코미디를 즐겨보는 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로, 20분짜리 시트콤은 40분짜리 기타 미드 장르에 비해 덜 부담이 된다. 둘째로, 코미디류는 기타 미드에 비해 에피소드 간의 연결성이 적어서 첫 화부터 시청하지 않아도 이해가 쉬운 편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인기 시트콤인 <빅뱅이론>이나 <모던 패밀리>의 팬자막이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는 점도 이런 현상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미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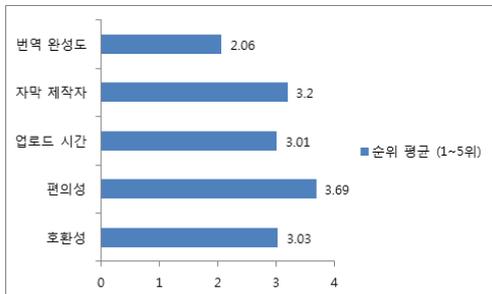
미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서 관심이 ‘매우 높다’가 18.8%, ‘다소 높다’가 47.1%, 그리고 ‘그저 그렇다’가 30.4%였다. ‘다소 낮다’와 ‘매우 낮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각 2.8%와 1.0%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미드를 찾아보는 매니아층답게 미국 문화에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5) 팬자막을 구하는 경로(좌) 및 선호하는 제작자(우)

한글 팬자막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52.3%, P2P가 25.1%, 자막제작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가 12.7%, 검색 엔진이 9.9%를 차지하였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팬자막 제작자들은 개인 사이트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2차로 배포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각 에피소드에 대한 배경 지식을 블로그에 공유하고,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선호하는 팬자막 제작자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21.8%가 없다고 밝혔고, ‘1명 있다’가 61.7%, ‘2명 이상 있다’가 16.5%였다. 이번 조사에서 많이 언급된 팬자막 제작자들은 주로 한 시즌 이상(약 20 에피소드)의 꾸준한 활동을 해왔고 블로그를 통해 자막 관련 부가 설명도 제공한 경우였다. 가장 인기 있는 팬자막 제작자는 과반수(53.1%)의 표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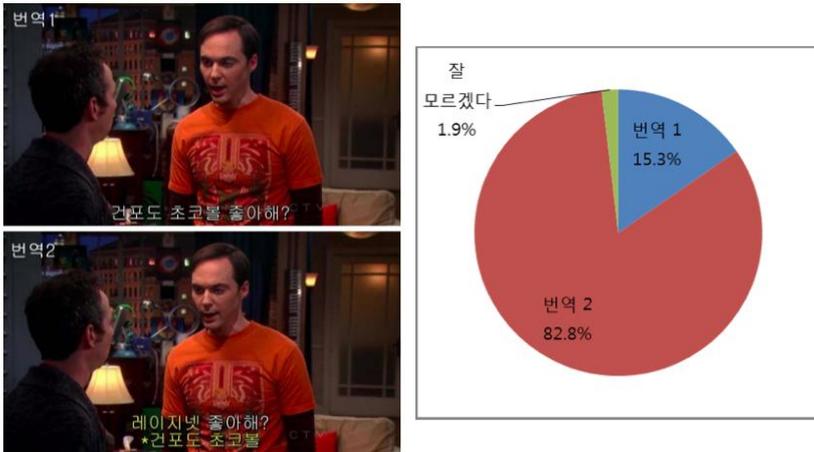


(그림 6) 팬자막 이용 시 고려하는 요소 (순위 매김)

팬자막 이용 시 고려하는 5가지 요소 중 응답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47.0%가 1순위로 선택한 번역 완성도였다. 여기서 완성도는 번역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 업로드 시간은 영상이 나온 후 얼마 만에 자막이 제공되었는가, 호환성은 영상과 싱크가 잘 맞는가, 자막 제작자는 평소 이용하던 제작자인가, 편의성은 쉽게 구할 수 있는 파일인가를 의미하였다.

순위 평균으로 나열하면, 응답자가 고려하는 요소는 완성도 다음으로 업로드 시간, 호환성, 자막 제작자, 그리고 편의성이다. 즉, 응답자는 양질의 자막이 빠른 시간 안에 제공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실제로 팬자막 제작자 간의 경쟁에서 우선적인 평가 기준이 되는 것도 자막의 질과 속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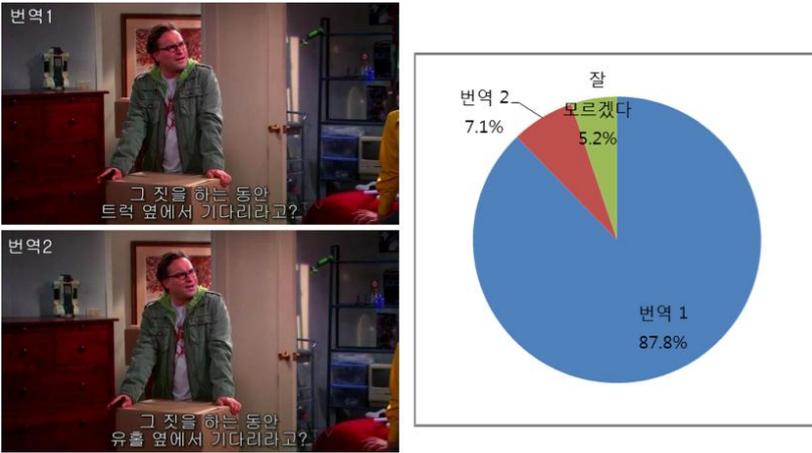
#### 4.2 이용자의 팬자막 선호도



(그림 7) 역주를 포함한 음차 번역의 예(좌) 및 선호도(우)

구분	내용	출처
ST	Do you like Raisinets?	<빅뱅이론> 시즌 6 에피소드 2
TT1	건포도 초코볼 좋아해?	팬자막 제작자의 대안 번역
TT2	레이지넷 좋아해? *건포도 초코볼	팬자막 제작자의 실제 번역

위의 예는 팬자막의 특성인 음차 번역과 역주 활용을 보여주고 있다.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2.8%는 팬자막에 실제로 사용된 TT2를 선택하였고, 15.3%는 팬자막 제작자가 대안으로 제시한 TT1을 골랐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9%였다.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제품이라 해도 응답자는 브랜드가 명시된 TT2를 선호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미국 문화에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역주를 짧게 추가해도 가독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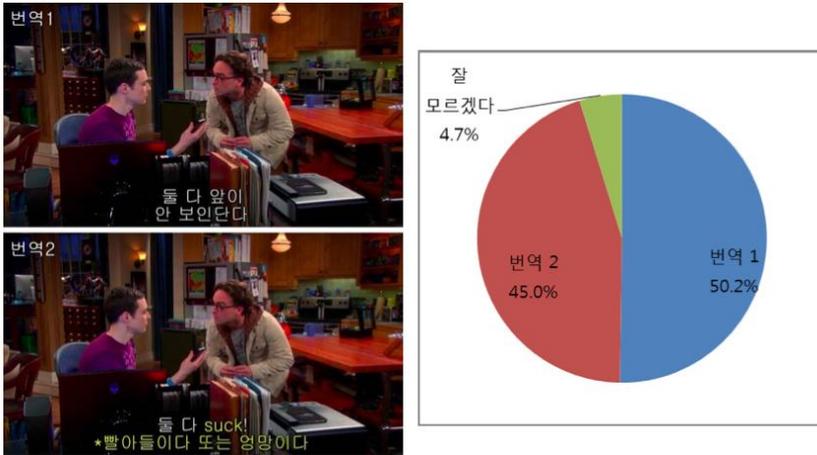
(그림 8) 역주 미포함 음차 번역의 예(좌) 및 선호도(우)

구분	내용	출처
ST	We're not standing outside by the U-Haul while you fondle yourself.	<빅뱅이론> 시즌 6 에피소드 7
TT1	그 짓을 하는 동안 트럭 옆에서 기다리라고?	팬자막 제작자의 실제 번역
TT2	그 짓을 하는 동안 유홀 옆에서 기다리라고?	팬자막 제작자의 대안 번역

이번에는 ‘유홀’이라는 생소한 브랜드를 역주 없이 음차 번역한 경우다. 응답자의 87.8%는 TT1을 선택하였다. 음차 번역인 TT2를 선호한다고 답한 응답

자는 7.1%, 잘 모르겠다 5.2%였다. 앞의 예와 마찬가지로, 높은 호응을 얻은 자막은 실제 팬자막에 사용된 TT1이었다.

팬자막 이용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를 음차 번역 했을 때, 자막만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는 TT1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훨씬 많았다. TT2에 역주를 추가했다면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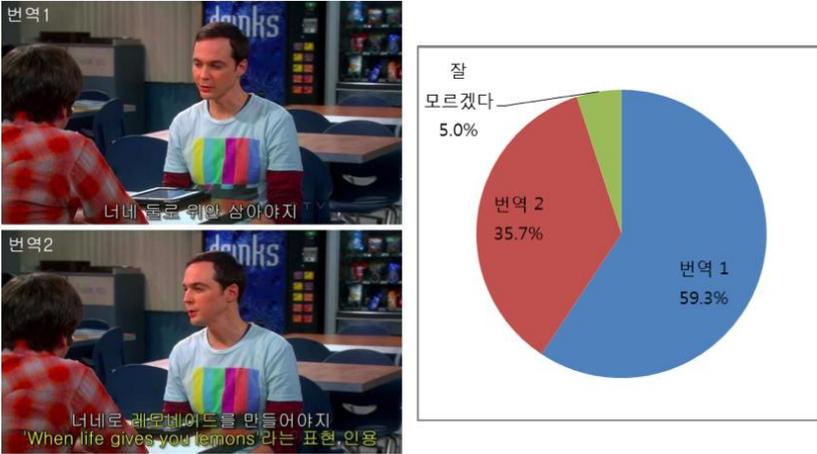


(그림 9) 언어유희 번역의 예(좌) 및 선호도(우)

구분	내용	출처
ST	What does Sheldon Cooper and the black hole have in common? They both suck!	<빅뱅이론> 시즌 6 에피소드 6
TT1	둘 다 앞이 안 보인단다	팬자막 제작자의 실제 번역
TT2	둘 다 suck! *빨아들이다 또는 엉망이다	팬자막 제작자의 대안 번역

위의 예는 'suck'라는 단어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근소한 차이지만 실제 팬자막에 사용된 TT1의 선호한 경우가 50.2%, 역주를 추가한 TT2가

낮다고 한 경우가 45.0%였다. 응답자의 4.7%는 선호도가 분명하지 않았다.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시청 목적( $p=0.0489$ )과 미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 $p=0.0002$ )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시청 목적에 교육이 포함되었을 때, 그리고 미국 문화에 관심이 많을수록 TT2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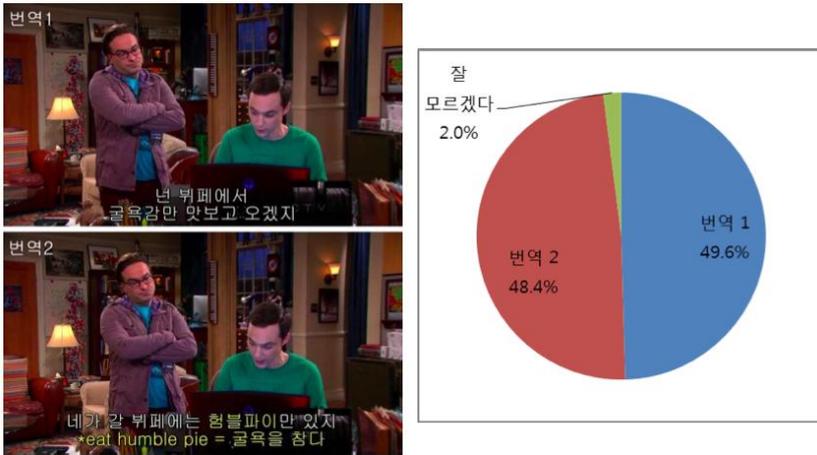


(그림 10) 생소한 표현 번역의 예(좌) 및 선호도(우)

구분	내용	출처
ST	I guess I just have to make lemonade out of the two of you.	<빅뱅이론> 시즌 6 에피소드 6
TT1	너네 둘로 위안 삼아야지	팬자막 제작자의 실제 번역
TT2	너네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야지 'When life gives you lemons'라는 표현 인용	팬자막 제작자의 대안 번역

팬자막 이용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표현을 인용하였을 때, 응답자의 59.3%는 실제 팬자막에 사용되었고 역주가 없는 TT1을 선호하였다. 표현의 유래를 역주로 설명한 TT2를 고른 응답자는 35.7%, 잘 모르겠다가 5.0%였다. 교차분석을 통해서 비교한 결과, 시청 목적( $p=0.0046$ )과 미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 $p=0.000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했다. 즉, 시청 목적에 교육이 포함되고 미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TT2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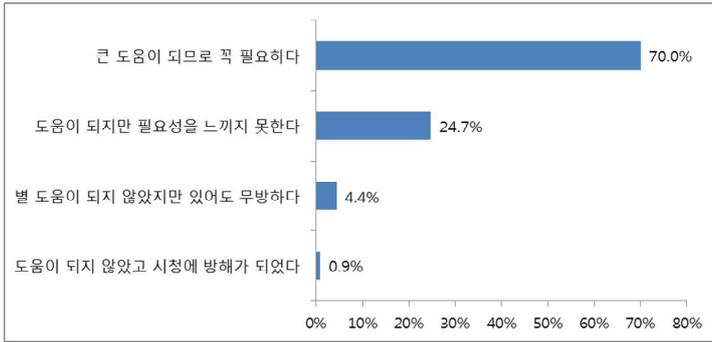


(그림 11) 관용구 번역의 예(좌) 및 선호도(우)

구분	내용	출처
ST	The buffet you're about to enjoy only serves humble pie.	<빅뱅이론> 시즌 6 에피소드 7
TT1	넌 뷔페에서 굴욕감만 맛보고 오겠지	팬자막 제작자의 실제 번역
TT2	네가 갈 뷔페에는 험블파이만 있지 *eat humble pie = 굴욕을 참다	팬자막 제작자의 대안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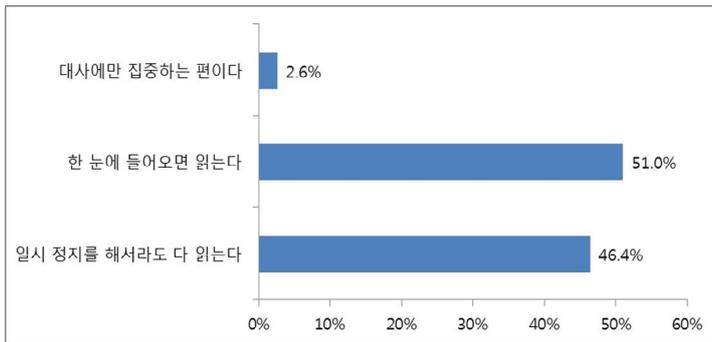
관용구 번역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한국어에 맞게 의역된 TT1을 선택한 응답자가 49.6%였다. 음차 번역 후 역주를 추가한 TT2는 비슷한 비율인 48.4%, 잘 모르겠다는 2.0%였다.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시청 목적( $p=0.0047$ )과 미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p=0.0000$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오락보다는 교육적 목적이 포함되었을 때, 그리고 미국 문화에 관심이 많을수록 TT2를 선택하였다.

### 4.3 이용자의 팬자막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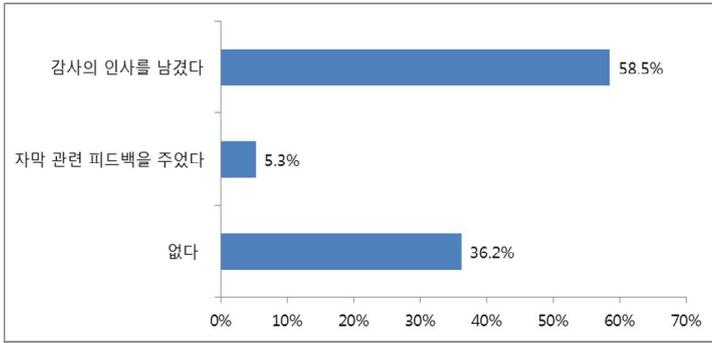
(그림 12) 자막 내 역주에 대한 의존도

자막 내 역주가 내용 이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묻은 질문에 압도적인 수치인 70.0%가 큰 도움이 되므로 꼭 필요한 요소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24.7%의 응답자는 도움이 되었으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별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있어도 무방하다는 4.4%, 도움이 되지 않고 시청에 방해가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0.9%에 불과했다. 전문 자막에 역주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춰볼 때, 역주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흥미로운 결과였다. 디지털 시대의 팬자막 제작자와 이용자들은 시공간적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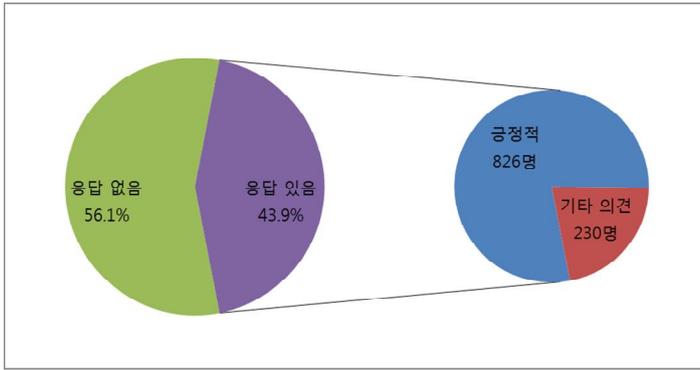
(그림 13) 자막 내 역주에 대한 집중도

평소 시청 습관을 알아보기 위해 자막 내 역주를 다 읽는 편인지 물었다. 응답자의 51.0%는 한 눈에 들어오면 읽는다고 했고, 이에 못지않은 46.4%가 한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일시 정지를 해서라도 역주까지 다 읽는다고 답했다. 역주가 아닌 대사에만 집중하는 응답자는 2.6%였다. 개인 PC로 미드를 감상하는 팬자막 이용자는 시공간적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시 정지나 되감기를 할 수 있는데, 과반수에 조금 못 미치는 46.4%가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었다.



(그림 14) 팬자막 제작자와의 교류

마지막 객관식 질문으로 팬자막 제작자에게 댓글을 남긴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58.5%는 감사의 인사를 남긴 적이 있고, 5.3%는 자막 관련 피드백을 줬다고 답했다. 댓글을 남긴 적이 없는 응답자는 36.2%나 있었지만, 몇몇 이들은 이어지는 자유 의견 문항에 “설문을 통해 자막 제작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남겼다.



(그림 15) 팬자막에 대한 자유 의견

객관식 질문 외에도 기타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주관식 항목을 마련하였다. 필수 항목이 아니었으나 응답률은 43.9%를 기록하였다. 총 1,056명에 달하는 응답자 중 826명(78.2%)이 팬자막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팬자막 제작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팬자막 제작자 닉네임과 미드 제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 5. 결론

본 연구는 기존에 알려진 팬자막 특성이 이용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사전 인터뷰에서 팬자막 제작자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취지와도 부합하였다. 연구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이용자들 사이에 인지도가 높은 팬자막 제작자와 설문 문항을 공동 설계하였고, 설문조사 링크는 팬자막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디○○○○○에 공개되었다.

팬자막 제작자들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들이 제작하는 자막에는 음차 번역, 역주 활용, ST와 TT의 병기 등 팬자막 특성을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추어 자막이라 해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유명한 팬자막 제작자들은 오히려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

들이 자막 제작에서 제일 어렵게 느끼는 점은 어떻게 하면 영어 대사를 한국어로 재미있게 살릴 수 있을 지였다. 편의를 위해 음차 번역을 하거나 ST를 그대로 남길 수도 있지만 가독성을 중요시한다고 밝혔다.

팬자막 선호도를 위해 삽입된 예를 보면, 간단한 상품명은 음차 번역을 하고 역주를 활용하는 번역 전략을 취하였다. 반면 언어유희, 생소한 표현, 그리고 관용구는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권에 맞게 의역되었다. 4.2장에 나온 5가지의 예에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자막은 모두 실제 팬자막에 사용된 번역이었다. 인지도가 높은 팬자막 제작자인 만큼 이용자가 원하는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팬자막 번역 전략의 수립에 참고가 될 만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응답자는 팬자막 이용 시 번역 완성도를 제일 중요시하였고, 78.2%는 선호하는 팬자막 제작자가 있다고 답했다.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명의 경우, 음차 번역 후 역주로 간략한 설명을 추가한 자막이 큰 호응을 얻었다. 언어유희, 생소한 표현, 관용구 등 번역하기 까다로운 경우, 시청 목적에 교육이 포함되고 미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역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비전문가 번역이 급부상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팬자막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상당수는 팬자막을 좋게 바라보고 있으며 팬자막 제작자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케이블 채널 FOXlife는 2010년과 2011년에 팬자막 제작자를 대상으로 ‘최고의 인터넷 자막고수를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하여 이들에게 영상 번역가로 데뷔할 기회를 제공한 적이 있다. 실제로 디○○○○○에 활동하던 한 팬자막 제작자는 최종 우승자로 선정되어 정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런 사례는 팬자막 제작자가 아마추어에서 전문 번역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와 유사한 부분을 지닌 김선영(2013)의 독자 반응 조사와 비교했을 때,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항목에는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김선영(2013)의 연구에서는 독자들이 역주 활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본 연구에서도 역주는 “큰 도움이 되므로 꼭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으로 김선영(2013)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막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해, 미드 매니아 커뮤니티 내에 잘 알려진 팬자막은 품질 측면에서 이용자들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

로 한 팬자막 제작자는 페이스북 팬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3천명이 넘는 팬들을 보유하고 있다. 아마추어 번역가인 것을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팬자막 제작자와 이용자 모두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팬자막 제작자는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역주를 활용하고 있었고, 개인 PC로 미드를 감상하는 팬자막 이용자는 일시 정지나 되감기로 부가 정보를 소화하고 있었다. IPTV에 방영되는 미드도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이점을 살린 자막을 제공한다면 시청자에게 또 다른 재미를 안길 수 있을 것이다. 시청자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해 맞춤형 자막으로 역주 포함/미포함 기능을 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까지 팬자막의 특성과 관련된 논문은 다수 발표되었으나 국내 미드 팬자막 이용자의 선호도 연구는 극히 드물다. 1주일 동안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2천명이 넘는 응답자를 쉽게 확보했다는 것은 팬자막 제작자들의 영향력을 증명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에서 아마추어 영상번역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는 시청 빈도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매니아층과 비매니아층으로 구분한다면 대중적으로 더 의미 있는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전문 번역가에게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어 팬자막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진숙 · 강연곤 · 김민철 (2012) 「인터넷 팬덤 문화의 생산과 공유에 대한 연구: 외국 영상물 ‘팬 자막’ 제작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6(1), 7-42.
- 김순영 · 정희정 (2010) 「인터넷 기반 비전문가 자막번역(Fansubs)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고찰」, 『번역학 연구』 11(4), 75-97.
- 김선영 (2013) 『팬 자막(Fansubs)의 독자 반응 조사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영 · 홍남희 (2012) 「전지구적 미디어 텍스트의 온라인 유통과 자막 제작자

- 의 역할: 미국 드라마 팬자막(fansub) 제작자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23, 47-77.
- 이상빈 (2011) 「팬 번역의 법적 지위 개선에 관한 연구 : 공정이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2(4), 119-143.
- 임양준 (2008) 「대학생들의 미국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한 시청동기 및 만족도 연구 :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1, 303-336.
- 저작권보호센터 (2012) 「201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http://www.cleancopyright.or.kr>.
- 정희정 (2010) 『팬 자막(Fansubs)의 특성 연구: 「섹스 앤 더 시티(Sex and the City)」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Diaz Cintas, Jorge & Munoz Sanchez, Pablo (2006) 'Fansubs: Audiovisual Translation in an Amateur Environment',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6: 37-52.
- Ferrer Simo, Maria (2005) 'Fansubs y scanlations: la influencia del aficionado en los criterios profesionales', *Puentes* 6: 27-43.
- Lewis, Philip E. (1985) 'The Measure of Translation Effects' in Joseph F. Graham (ed.) *Difference in Transl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 Nornes, Abe Mark (1999) 'For an abusive subtitling' in Lawrence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Nornes, Abe Mark (2007) *Cinema Babel: Translating Global Cinem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 Perez Gonzalez, Luis (2006) 'Fansubbing Anime: Insights into the Butterfly Effect of Globalisation on Audiovisual Translation',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14(4): 260-77.

<부록 1> 설문지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3. 영어 리스닝 점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 ① 상 (토익 리스닝 400점대)    ② 중 (토익 리스닝 300점대)  
③ 하 (토익 리스닝 200점대)

4. 무자막으로 미드를 시청할 경우, 얼마나 이해가 되시나요?

- ① 대부분    ② 중간 이상    ③ 중간    ④ 중간 이하    ⑤ 거의 못함

5. 미드를 주로 어떤 목적으로 시청하시나요?

- ① 교육    ② 엔터테인먼트    ③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6. 즐겨보는 미드의 장르는? (복수 선택 가능)

- ① 액션/어드벤처    ② 미스터리/스릴러  
③ 수사물/법정물    ④ 코미디    ⑤ 드라마

7. 미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는?

- ① 매우 높다    ② 다소 높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낮다    ⑤ 매우 낮다

8. 미드 시청을 위한 한글 자막은 어떻게 구하시나요?

- ① P2P    ② 온라인 커뮤니티    ③ 검색 엔진    ④ 자막 제작자 블로그

9. 선호하는 자막제작자가 있나요? 해당 미드도 명시해주세요. (주관식)

10. 자막 이용 시 고려하는 요소의 순위를 매겨주세요.

- ① 번역 완성도 (번역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
- ② 자막 제작자 (평소 이용하던 제작자인가?)
- ③ 업로드 시간 (영상이 나온 후 얼마 만에 자막이 제공되었는가?)
- ④ 편의성 (쉽게 구할 수 있는 파일인가?)
- ⑤ 호환성 (영상과 싱크가 잘 맞는가?)

11. 아래 예에서 선호하는 번역 스타일은?<sup>6)</sup>

원문: Do you like Raisinets?



- ① 번역 1    ② 번역 2    ③ 잘 모르겠다

12. 아래 예에서 선호하는 번역 스타일은?

원문: We're not standing outside by the U-Haul while you fondle yourself.



- ① 번역 1    ② 번역 2    ③ 잘 모르겠다

6) 실제 설문지에 사용되었던 이미지를 25% 크기로 축소하여 부록의 11-15번 문항에 삽입하였다.

13. 아래 예에서 선호하는 번역 스타일은?

원문: (What does Sheldon Cooper and the black hole have in common?)

They both suck!



- ① 번역 1    ② 번역 2    ③ 잘 모르겠다

14. 아래 예에서 선호하는 번역 스타일은?

원문: I guess I just have to make lemonade out of the two of you.



- ① 번역 1    ② 번역 2    ③ 잘 모르겠다

15. 아래 예에서 선호하는 번역 스타일은?

원문: The buffet you're about to enjoy only serves humble pie.



- ① 번역 1    ② 번역 2    ③ 잘 모르겠다

16. 평소 미드 시청시, 자막 내 역주가 내용 이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① 큰 도움이 되므로 꼭 필요한 요소이다
- ② 도움이 되었으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 ③ 별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있어도 무방하다
- ④ 도움이 되지 않았고 시청에 방해가 되었다

17. 자막 내 역주에 얼마나 집중하는 편인가요?

- ① 일시 정지를 해서라도 다 읽는다
- ② 한 눈에 들어오면 읽는다
- ③ 대사에만 집중하는 편이다

18. 자막 제작자에게 댓글을 남긴 적이 있나요?

- ①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 ② 자막 관련 피드백을 주었다
- ③ 없다

19. 기타 자막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주관식)

[Abstract]

**A Study of User Preference  
Towards Fansubs for American Television Series**

Park, Kyoung-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ince the advent of the digital era, fansubber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llowing the Korean audience to enjoy American television series within hours of broadcast in the United States. In light of the changing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ansubbers and digital media providers with valuable insights on user preference through an online survey completed by 2,405 Korean viewers. Some popular fansubbers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design of the survey, which covers fansub features and common translation problems faced in amateur subtitling. An analysis of survey results showed that most of the respondents preferred brand names to be transliterated followed by a gloss. Those with educational motive and a high level of interest in American culture were more inclined to favor glosses for longer lines involving wordplay, proverbial phrases, or idioms. These results may be utilized to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fansubs, and also serve as a useful reference for IPTV subtitle providers who wish to satisfy the needs of digital consumers.

▶ Key Words: amateur subtitling, audience preference, fan translation, fansub, reader response

박경리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toji@hufs.ac.kr

관심 분야: 문학번역, 영상번역, 독자반응

논문투고일: 2013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2일